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김상옥 기자 | 승인 2025.01.23 14:43

[농축유통신문 김상옥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직원들이 전통시장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촌공사 장성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윤영일)는 은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청년 농업인에 농지공급 확대 등을 위한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받고 있어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하는 사업이다. 만 65세 이상 만 84세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을 해온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공사 등에게 매도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매도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조건부임대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지급형'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윤영일 지사장은 "은퇴·고령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지원해주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와 영농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061-390-8636)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옥 기자